

목우촌 육가공공장의 규격돈 구매 및 정산방법

1. 서론

육가공공장 또는 도축장에서 어떤 방법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등급 & 생체중량)으로 어떻게 원료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양돈농가 또한 생산의 주안점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로 볼 수 있는 점은 첫째로, 농장 문전거래 방식인 생체 지급률 거래방식 즉, 단기속성식 출하방식이다. 둘째로, 상품의 최종단계인 출하운송시 공들여 잘 키운 돼지를 아무렇게나 다룬다는 점이다.

목우촌 육가공공장에서는 우리나라 양돈사양 - 위생도축 - 위생가공 - 위생유통 - 안전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중에서 양돈 사양관리 부문인 위의 두가지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미국, 대만, 덴마크와 세계 최대의 일본시장을 공략하는데 우리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돈육의 수출로 국내 양돈산업을 지속유지 또는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하여 양돈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 병 국 생산부장
(목우촌 육가공공장)

2. 본론

가. 돼지 도체등급제 정산제도 도입

서론에서 거론됐던 첫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우촌 육가공공장은 개장시기부터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를 시행하여 국내 도축된 돼지중에서 최고의 품질이라 자타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돼지 도체등급제 시행에 따른 분석내용은 뒤에서 계속 거론하겠다.

현행 농장문전거래 방식의 생체 지급률은 자금자축하던 80년대, 90년대초에 각종 질병 또는 하절기 수태율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발생시 여러 육가공공장에서 원료돈수급의 탄력성을 갖고자 도입하였던 것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거래형태로 말미암아 생산능가는 단기 속성 출하방식의 양돈 사양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어느 회사의 사료가 증체가 빠른가?" 즉 돈가가 상승시기에는 질 좋은 사료(값보다는 질 위주), 돈가의 하락시에는 질이 낮은사료(질보다는 값 위주)를 선택하는 등 고정거래처를 갖고 육질과 육중에 맞는 사료선택이 아니라 돈가의 흐름에 따라 사료선택으로 돼지의 상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러한 사양방식이 주류를 이뤄왔던 것이다.

최근 돈육이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단기속성출하로 인하여 일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의 돈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의 시급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수출 육가공공장 만큼만이라도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한국 산 돈육의 이미지 개선을 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목우촌 육가공공장에서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를 개장초기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변화되고 있는 현황을 아래의 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목우촌 원료돈의 등급별, 성별, 지육중량별 출현성적

(1) 등급별 출현율 변동 추세(표1)

'86년 이후 (A+B) 등급 출현율은 평균 65%수준에서 '97.5월 이후 다소 낮은 출현율을 보인다 '97. 8월 돼지 도체등급 개정 시행후 A등급 출현율이 개정전과 비교시 3배이상 높게 출현되며, B등급은 60% 포인트 낮게 출현되어 B

등급 돼지가 등급제 개정 후 A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등지방두께로 인하여 등급이 하락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돼지 도체등급제 방향은 등지방두께는 낮춰가면서 지육중량범위는 수출최적규격(박피 기준 67~77kg)에 한하여 A+B등급이 출현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의 목표를 중돈개량부분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2) 지육중량별 출현율 변동 추세(표2)

수출규격 최적체중인 67~77kg 출현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하절기(5~8월)에는 생체중량 105kg 이하 출하가 성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규격외돈(58kg미만, 87kg이상)의 출현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돈농가가 육가공공장 구매조건에 맞게 출하하려는 움직임은 엿볼 수 있다.

아래의 성별 출현율 분석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다.

(3) 성별 출현율 변동 추세(표3)

(표1) 등급별 출현율

(단위 : %)

구 분	'95	'96	'97								
			1	2	3	4	5	6	7	8	9
A등급	8.14	8.76	12.57	13.13	9.91	10.41	9.3	9.2	8.66	24.9	33.3
B등급	38.73	53.1	52.0	54.49	53.8	53.05	50.6	44.3	44.2	33.9	30.4
(A+B) 등급	<u>46.87</u>	<u>61.86</u>	<u>64.57</u>	<u>67.62</u>	<u>63.71</u>	<u>63.46</u>	<u>59.9</u>	<u>53.5</u>	<u>52.86</u>	<u>58.8</u>	<u>63.7</u>

(표2) 지육 중량별 출현율

(단위 : %)

구 분	'95	'96	'97								
			1	2	3	4	5	6	7	8	9
58kg미만	6.5	5.7	4.26	3.84	3.29	2.93	3.6	5.15	8.4	6.8	4.8
58~67kg	27.3	32.2	23.84	25.29	24.41	22.94	25.85	29.9	36.68	37.2	32.8
67~77kg	<u>42.2</u>	<u>46.2</u>	<u>47.8</u>	<u>48.86</u>	<u>49.59</u>	<u>50.36</u>	<u>50.0</u>	<u>48.46</u>	<u>43.8</u>	<u>45.9</u>	<u>50.4</u>
77~87kg	19.3	13.9	20.4	19.0	19.58	20.3	17.2	13.9	9.55	8.6	10.3
87kg이상	4.5	1.8	3.62	2.96	3.11	3.46	3.21	2.52	1.53	1.5	1.7

(표3) 성별 출현율

(단위 : %)

구 분	'95	'96	'97									
			1	2	3	4	5	6	7	8	9	
암(%)	47.0	47.43	46.75	46.34	46.92	47.6	47.4	47.67	47.7	49.4	47.4	
수컷(%)	비거세	24.67	15.32	15.31	15.67	15.01	13.26	13.87	12.0	10.07	8.5	8.2
수컷(%)	거 세	28.28	37.24	37.92	37.97	38.0	39.12	38.72	40.31	42.21	42.1	44.4

암컷의 출현율은 '95년 이후 꾸준히 4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거세의 경우 '95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97. 9월 현재 8.2% 출현율을 보이고 있어 양돈 계열화사업 추진 효과 및 출하대금 정산제도의 성과로 풀이된다. 타 육가공 공장이나 각 공판장 출현율이 35% 이상인 것과 비교시 목우촌 공장이 수출규격원료돈 확보 차원의 경쟁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목우촌과 타업체의 원료돈 구매 현황 분석

'97년 평균 비거세 출현율이 10% 수준으로 타육가공업체 및 서울공판장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암컷의 출현비율 또한 서울도매시장을 제외한 타 육가공업체와 비교시 매우 높은 출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4) 목우촌과 타 업체의 원료돈 구매현황

(단위 : %)

구 분	목 우 촌 ('97.1~6)	A사 ('97.1~6)	B사 ('97.1~6)	서울공판장 ('97.1~6)	
					성 별
성 별	암(%)	96,066(47.1%)	74,126(36.1%)	57,182(31.8%)	222,880(60.3%)
	수	29,037(14.2%)	64,829(31.6%)	90,184(50.2%)	127,466(34.5%)
	거세	78,796(38.6%)	66,404(32.3%)	32,197(17.9%)	19,049(5.16%)
	계	203,899(100%)	205,359(100%)	179,563(100%)	369,395(100%)
등급 별	A	21,976(10.7%)	13,159(6.4%)	5,590(3.11%)	30,529(8.26%)
	B	105,197(51.6%)	76,219(37.1%)	58,570(32.6%)	123,637(33.47%)
	C	55,608(27.2%)	87,051(42.4%)	88,570(49.3%)	126,148(34.15%)
	D	20,760(10.2%)	28,103(13.7%)	25,695(14.3%)	52,419(14.19%)
	E	358(0.17%)	827(0.4%)	1,138(0.63%)	36,662(9.92%)
	계	203,899(100%)	205,359(100%)	179,563(100%)	369,395(100%)

(5) 출하대금 정산방법

목우촌 육가공공장에서는 '94년부터 양돈 계

열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열농가를 조성하여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출하처 보장 및 매일 매일 시세는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생산성 향상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출하전일 15일간 서울 도매시장 등급별, 성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지만 돈가상승시 출하회피, 돈가하락시 흥수출하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출하형태를 가져와 계열농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 제도를 "출하당일 서울도매시장 등급별, 성별 평균가격"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다.

목우촌 육가공공장 출하대금 정산방법중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출하대금 정산시점 : 출하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지급

○월초, 말 출하시 : 선금급 제도 도입(출하의 일 80%선까지)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 시행

○수출 최적규격돈 출하시 인센티브 지급 (2,500원~5,000원/두)

○규격외돈 출하시 패널티 적용

○비거세돈 출하시 패널티 적용(거세가격에서 -2%)

○거세가격 결정시 동일등급 암컷가격의 가격지수제 적용(분기별 조정)

○계열농가와 비계열농가와와의 정산제도 차별제를 시행하고 있어 수출규격돈 생산 및 출하유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최종제품(원료돈)의 취급(상차, 수송, 계류)

농장문전거래 방식인 생체지급률 거래시에는 원료돈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종 출하단계(즉, 농장에서 상차대 없는 상차작업, 무원칙한 수송,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하는 계류시설 등)에서 무려 6개월동안 잘 키운 돼지(농가측면에서 보면 최종제품)를 몇시간 만에 망쳐버리는 우(절각, 피명, 폐사, PSE, 햇빛에 노출되어 익어버린 살갓 등)를 지금도 범하고 있으며, 원료돈 수송 복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 예상된다.

목우촌 육가공공장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원료돈 수송지침"에 마련하여 계열농가, 일반농가 및 전문 수송기사에게도 동 내용을 홍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식(덴마크, 미국 등) 원료돈 수송 전문차량을 제작하여 지역축협에 지원하여 수송의 복지화를 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단순히 차량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돈산업 관련자 모두의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싶다.

앞으로 정부 - 육가공공장 - 수송자 또는 양돈농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원료돈 수송 특장차량이 자동차회사의 특장부문에 포함되어 지금과 같은 불법개조 또는 차량출고후 특장을 별도 설치로 구조변경신청등 추가비용지출과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원료돈 수송 모델 차량"을 지정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육가공공장에서는 잘 키워 온 원료돈을 하차시와 계류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에서는 양돈산업이 지속발전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육을 일본에 수출하여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비육후기, 출하전 급여금지, 농장에서 상차대를 통한 상차작업, 전기봉 사용금지, 구타금지와 수송중 급출발,

급정거 등 최종제품(출하 원료돈) 취급상의 주의가 요망된다.

3. 결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의 양돈산업에서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국제 경쟁력 약화(즉 육질, 생산비 등)로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 공장 원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향후 종돈 개량지표를 설정하여 개정시행되고 있는 "돼지 도체등급기준"의 연차별 강화가 요구 되어진다.

개정 1차년도('97. 8월이후)는 돼지의 등지방 두께와 출하체중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A+B등급 출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2차년도('98년도)부터는 수출최적규격에 한하여 A+B등급 출현과 등지방을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등급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출전문 육가공공장에서는 "돼지 도체등급 정산제도"를 통하여 하절기 만성적인 수출원료 부족현상으로 원료돈 구매 과열경쟁을 피할 수 있으며, 수출 원료 확보차원으로 과외두수(규격외두수) 도축으로 지육 또는 부분육의 재고부담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양돈농가는 출하돼지가 개량되어진 만큼(지육과 등급) 출하대금이 정산되므로 "개량된(좋은) 돼지는 제값을 받는"풍토가 형성되어 상호신뢰하에 생돈 유통질서 확립이 실현되는 등 좋은 장점이 있다.

돼지 도체등급제가 수출전문 육가공공장에서 시행된다면, 양돈농가는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가공공장(출하대금 정산이 어떤 육가공공장에 출하하여도 같은 가격이 책정됨 - 등급에 따라 정산대금 결정)에 출하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소(감량, 폐사, 수송비 등)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養豚**